

아버지와 나 시리즈 9 - 리더십, 거룩한 영향력

<차례>

- Chapter 1 : 리더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 Chapter 2 : 리더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 Chapter 3 : 리더는 비전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 Chapter 4 : 리더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 집니다.
- Chapter 5 : 하나님은 영향력 있는 여성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 '아버지와 나' 시리즈를 발간하며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들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비밀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들을 12가지 주제로 묶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 좋으신 나의 아버지
성령님 - 살리시는 영
예수님 - 구원의 이름
사탄의 영적전쟁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기도 - 우리의 살 길
교회 - 세상의 소망
리더십 -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예배 - 설레이는 만남
선교 - 존재이유
사역 - 인생의 행복
성경 - 내 길의 빛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대는 나의 동역자요, 동지요, 친구입니다.
나의 꿈, 그대 젊은이를 사랑합니다.
- 그대들의 영원한 친구 준석이가 뜨거운 가슴을 품고 쓰다.

리더십 - 거룩한 영향력

숙련된 비행기 조종사 한 명을 키우기 위해 항공사는 수 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뜨거운 가슴을 가진 한 명의 리더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 리더는 각자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전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생명에 이르는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가장 큰 행복은 좋은 리더를 만나 그에게서 배우는 것이고, 또 다른 행복은 그 자신이 리더가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 Chapter 1 - 리더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포로로 혹은 종으로 잡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사로잡은 자와 주인에게 영향을 미친 수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보기 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 말씀읽기 1

다니엘 5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 묵상하기 1

본문의 상황 속에서 신분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 묵상하기 2

다니엘이 그와 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힘을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리더일 수 있다.”

영화 크림슨 타이드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핵전쟁을 일으키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 속에서 미 핵 잠수함 내에 일어나는 리더십의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두 핵심리더는 핵미사일 발사여부를 놓고 갈등하는데 그 과정에 리더십의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관습을 따르는 함장과 냉철한 이성, 원칙에 따르는 부함장이 서로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는가 하면, 누가 더 실질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누가 더 부하 장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느냐, 실전상황에서 누가 더 침착하고 용기 있게 대처하도록 훈련되어 있느냐 하는 등 리더십의 여러 가지 요소가 팽팽한 긴장 가운데 소개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세계관과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헌신적으로 행동한 말단의 병사 혹은 장교들이나 장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두머리는 아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분명한 리더였습니다.

구두수선공이던 무디(D.L.Moody)는 구둛방에서 일을 마치고는 아이들을 끌어 모아 주일학교를 세우기 시작해서 후에는 20세기의 대 부흥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흑인 노예였던 헨리엣 터프만(Harriet Tubman)은 자기를 찾는 현상수배문도 읽을 수 없는 까막눈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수백 명의 흑인 노예를 미 북부로 탈출시켜서 자유를 안겨준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가 사회적 신분의 사다리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든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나눔시다

-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리더는 누구입니까?
- 또한 지금 내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리더는 누구입니까?
- 나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 말씀읽기 2

사도행전 6:3-6, 디모데전서 3:1-13을 읽어 보세요.

☞ 묵상하기 1

초대교회가 사도 외에 새로운 리더를 세울 때 기준으로 삼았던 덕목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 묵상하기 2

리더를 세운 후에 사도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였습니까? (행 6장)

☞ 참고

어떤 사람의 리더십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하며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쳤느냐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리더십은 직함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내가 과장이니까, 내가 선임이니까 하고 직함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하는 이는 가장 낮은 단계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하직원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가 업무처리 능력이 형편없다면 그는 그 부서 외에서는 도무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리더십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다른 이들을 지도자로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내 아랫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서 그들의 장점을 잘 살펴서 그들의 장점을 개발시켜주고, 단점은 깨우쳐 주어서 자기와 같은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의 리더십은 성숙한 인격을 갖춘으로 팔로워(follower)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하고 직함만 내세웠다면 그는 유대 시골 어느 마을의 골목대장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돌보았으며, 무엇보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신적인 권능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못다 펼친 그의 꿈을 대신 감당할 12명의 제자들을 리더로 재생산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본 적도 없고, 동시대를 살지도 않았던 수 십억의 인류로 하여금 그분의 인격과 가르침에 대해 듣고 감동을 얻어 생명을 버리기까지 헌신하도록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최고의 경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눔시다

-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에서 혹은 가정과 학교에서 리더의 덕목을 갖춘 사람입니까?
-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딤후 3:7) 입니까?
- 또 당신은 세워진 리더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합당한 존중을 포함니까?

☞ Chapter 2 - 리더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전통적인 유교문화권에서는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의무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체면을 깎이는 일이라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참된 리더는 섬기는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말씀읽기 1

막 9:33-35, 요 13:1-16, 벘전 5:1-7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웃사람의 끝이 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묵상하기 2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 참고

‘리더는 섬기는 자’라고 할 때 섬김이란 기능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비서의 일을 대신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고 해서 제자들이 매일 저녁 예수님께 발을 내밀고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눔시다

◦ 그렇다면 섬기는 것과 위계질서를 지키는 것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 “위대한 2인자”

예수님과 세례요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요나단, 모택동과 주은래, 빌게 이츠와 스티브 발머... 위대한 1인자의 곁에는 언제나 위대한 2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1인자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왔고 결과적으로 그를 토벌 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똑같이 가나안 정탐에 참여해 믿음의 보고를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되었을 때 그는 낙심하

거나 질시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잘 보필합니다. 그리고 85세의 나이가 되어서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수소서’ 하고 외치며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을 향해 진격해 올라가 그곳을 차지합니다.

요나단 또한 2인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멸하려 할 때에 그들 중 백명을 데려다가 몰래 굴 속에 숨겨두고 먹거리를 공급함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바알선지자들을 무찌른 엘리야만을 기억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들을 살려 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2인자 오바댜였던 것입니다.

♣ 말씀읽기 1

누가복음 7:2-10을 함께 읽어보세요.

☞ 참고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그 수하에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린 지휘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며, 지극히 싫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만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묵상하기 1

본문의 전후 문맥으로 보아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백부장은 어떤 단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묵상하기 2

백부장의 요청은 자기가 누구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니까?

※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장군 우리아”

삼상 11장에는 다윗 왕이 밋세바를 범하고 임신하자 전쟁 중에 있는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여 자신의 분륵을 은폐하려 시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 상황을 묻고 이제 그만 집으로 내려가 쉬라고 권하니, 우리아는 왕의 궁전을 물러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 밤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의 궁 문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계획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음날 아침 다윗은 우리아에게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냐고 묻습니다.

그 때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별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섬기는 리더는 언제나 자신의 미션과 함께 자신이 돌보아야 할 사람들과 동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지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늘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눔시다

- 당신은 당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그룹의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사람입니까?
- 가장 최근에 성공한 일을 돌아봅시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 팔로워들에게 합당한 감사를 표했습니까?
- 만약 당신의 명예 혹은 체면과 당신의 팔로워의 유익이 충돌한다면, 어떤 쪽을 택하겠습니까?

(ex : 나의 상급자에게 팔로워의 고충을 전달함으로 인해 윗사람에게 조직의 비협조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갈등상황)

☞ Chapter 3 - 리더는 비전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리더는 세상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 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 리더는 때로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 사람만 무너지면 그의 영향력 아래 있던 수 많은 영혼들이 흔들리며 통째로 사단의 손에 넘겨 질 수도 있기에 크리스찬 리더는 영적 전쟁터에서 적의 가장 큰 타겟이 됩니다. 그대의 작장이나 학교, 혹은 그대의 가정이 지금까지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경건한 어느 리더가 그 공동체의 파수꾼으로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은 반드시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졸음과 싸우며 두려움과 의로움을 이기며 때로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 까지 그 공동체를 지키지 않으면 숨어드는 적들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서 있는 곳을 지키는 파수꾼입니까? 당신은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계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파수꾼입니까?

♣ 말씀읽기 1

느헤미야 4장과 6장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견뎌내야 했습니까?

☞ 묵상하기 2

극심한 어려움을 이겨내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 구장에서 가장 외로운 사나이“

5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프로 운동선수 중에 흑인 선수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 두꺼운 인종 차별의 벽이 무너지게 된 데에는 한 사람의 거룩한 희생과 꺼질 줄 모르는 조용한 용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 재키 로빈슨 (Jackie Robinson) 이었습니다.

브루클린 다저스의 책임자였던 브랜치 리키 (Branch Rickey)는 자신이 눈여겨본 탁월한 재능의 흑인선수 재키 로빈슨에게 프로 야구계에서 인종차별의 벽을 깨자는 거룩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로빈슨은 성깔도 있고 힘도 센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를 얹혀 놓고 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란 책을 읽어 주며 이렇게 다짐시켰습니다. “이제 자네가 그라운드로 나가면 군중이 매 게임마다 갖은 욕설과 야유를 퍼부을 것이고, 물건들을 집어던질지도 몰라. 증오에 찬 고향과 눈길을 던질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네는 절대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돼. 알겠지? 자네는 자네 자신을 위해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차별받는 흑인들 전체의 명예를 걸고 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해!” 젊은 혈기의 로빈슨은 기도하면서 이 도전에 응했고, 평생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로빈슨은 야구팬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욕설과 야유와 심지어는 죽이겠다는 협박까지도 받았고, 동료들까지도 그를 좋게 여기지 않았지만 조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에러라도 한 번 범하는 날이면 군중들은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야유를 보내었기에 로빈슨은 구장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빈슨은 그의 약속대로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며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로빈슨은 10년 동안 다저스 팀에서 뛰었는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 47년에는 내셔널리그 최고 신인상을 49년에는 MVP 상을 수상했으며, 생애 통산 타율 0.311, 도루 197개, 6번의 월드 시리즈와 6번의 올스타게임 참가라는 찬란한 기록을 남겼고, 62년에는 야구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희생은 수백, 수천의 흑인 선수들이 미국 프로 스포츠 계에 진출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최고의 흥런 왕이었던 행크 아론은 자신이 제일 존경하는 영웅으로 재키 로빈슨을 꼽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갖은 모욕과 멸시를 견뎌내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재키 로빈슨. 그는 진정 비전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용기 있는 리더였습니다.

나눔시다

- 당신이 직장과 학교를 통해 이루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 말씀읽기 2

예레미야 20:7-13, 요한복음 16:33, 디모데후서 3:12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 묵상하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눔시다

- 당신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나 상황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신앙의 고투 끝에 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런 간증이 없다면 이번 주에 반드시 이겨내고 싶은 삶의 영역을 순원들과 나누고 승리 하겠노라고 선포합시다. 믿음의 선포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 Chapter 4 - 리더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 집니다.

“챔피언은 링 위에서 챔피언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링 위에서 챔피언으로 인정된 것뿐이다.”

이것은 과정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챔피언의 일상생활을 관찰 해 보면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엄격한 자기 절제의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링 위에서 챔피언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리더 역시 엄격한 자기 훈련을 통해 만들어 집니다. 매일 매일 성과 육을 쳐서 복종 시키기를 훈련한 사람만이 일관성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복된 훈련은 습관을 형성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 말씀읽기 1

딤후 4:7-8을 함께 읽어 보세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 묵상하기 1

성경은 사람이 경건에 이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눔시다

-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능숙하게 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 : 청소, 악기연주, 증시분석, 요리, 운전, 컴퓨터, 수영, 볼링 등등)
- 영적인 영역에서도 반복해서 훈련함으로 인해 진보를 체험하게 된 것이 있다면 역시 나누어 봅시다.

♣ 말씀읽기 2

히브리서 5:12-14를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세요.

“12. 여러분은 벌써 오래 전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에게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13.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14.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옳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묵상하기 1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 참고

우리는 비전과 결단력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도 반복된 훈련의 결과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상은 학자들이 만들지만, 역사를 만들어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군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즐기는 사람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습니다. 결단력은 연습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나눔시다

- 당신은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순종, 헌신,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더욱 연단 될 필요가 있나요? 더욱 성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 또한 리더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실천에 옮기는 결단력을 키우는 법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도 나누어 봅시다.

※ 자유의 도상에 있는 정거장 - 훈련

- 디트리히 본 회퍼

자유를 찾아 떠나려거든,
욕망과 너의 지체가
너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너의 감각과 영혼을 훈련하는 일을 배우라.
너의 영혼과 신체를 정결히 지키고,
너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
자기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라.
훈련 없이 자유의 비밀을 맛본 자는 없다.

☞ Chapter 5 - 하나님은 영향력 있는 여성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회와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여성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고유한 성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수 세기동안 세상은 왜곡된 남성중심의 리더십 아래 정복하고, 지배하는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여성은 돕는 배필(ezer)로서 남성이 바른 영적 권위와 머리됨(Headship)을 회복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뿐 아니라 독자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결코 여성이 남성과 같아진다고나 여성이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가장 여성다운 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여성들이 사회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여년 전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여성리더 양성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수많은 여학교를 설립해서 그들을 통한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꿈은 바로 그 미션스쿨을 통해 배출된 수많은 여성인재들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참고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남성이 일반적으로 공간개념에 탁월하고 구조중심이며, 흑백논리의 세계를 좋아하고, 권력 지향적으로 사고하는 데에 비해 여성은 일반적으로 언어에 탁월하며,

관계 중심적이고, 중간지대를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긍휼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공간	구조	논리	흑백	권력지향
여성	언어	관계	감정	중간지대	돌봄, 헌신

♣ 말씀읽기 1

고린도전서 14:34-40, 갈라디아서 3:28을 함께 읽어 보세요.

☞ 묵상하기 1

고린도전서의 14장이 밝히려는 본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묵상하기 2

고린도전서 1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눔시다

◦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사무실의 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여성이 자리 매김하기 위해 여성 자신과 남성이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말씀읽기 1

사사기 4장을 함께 읽어 보세요.

☞ 묵상하기 1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사사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 묵상하기 2

한 민족을 구하고 복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인 두 명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힘의 근원, 즉 리더십의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 “서른살, 잔치는 시작되었다!”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는 친근한 이미지로 상상을 추월하는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토크쇼의 여왕입니다. 그녀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 현재 미국 내 1천 5백만 명의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어, 출판업계와 방송계에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린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포그룹의 경영인으로서 자신의 프로덕션과 식당 등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인터넷사이트와 함께 ‘O’란 잡지를 만들어 지금도 계속해서 신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방송계에서 샤론 스톤처럼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지도, 힐러리 여사처럼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데다 ‘똥똥이 흑인 아줌마’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녀가 이처럼 사랑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 즉 감사의 마음을 늘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프라는 매일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고 수시로 사람들에게 감사 카드를 보냅니다.

그런 오프라 윈프리에게 있어 서른 살은 영화배우로 데뷔한 뜻 깊은 해였습니다. 그것도 스티븐 스피버그라는 천재감독의 ‘컬러 퍼플’을 위해 본인이 직접 출연을 제의한 것이었습니다. 토크쇼 진행자로서의 명성과 엄청난 재력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 그녀는 처음 앨리스 워커의 원작 ‘컬러 퍼플’을 읽을 후 밤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영화로 향하는 길을 보여 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조명기구를 날라도 좋고, 비오는 장면에서 살수차의 물 뿌리는 일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앉아서 기도만 했다고 ‘컬러 퍼플’의 소피아 역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자마자 곧 바로 작가 앨리서 워커에게 자신의 이력과 책을 읽은 느낌을 적어 보냈습니다. 만일 이 책이 영화화된다면 오디션을 받기 위해 세상 어디라도 달려가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다행히 제작자 퀸시 존스가 우연히 시카고에 들렀다가 오프라의 토크쇼를 보았고, 오프라가 소피아 역에 적임자라고 스피버그에게 추천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대신 그 일을 해 주길 기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싸구려 대본이나 얻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좋은 작품이 눈에 띄면 어떻게든 건져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녀는 스스로 영화배우로서의 역할을 신청했고, 새로운 삶의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서른을 맞은 오프라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금언들

- 사람들을 계발시키는데 전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밖에 없다.
- 어떤 개인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 그 사람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라.
-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할 때 다른 사람에 의해 해결 될 수 있는 것은 버리고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택하라. (우선순위의 법칙)
-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환경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 환경들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 중요한 것은 나에게 (to me) 무슨 일이 일어나는 가보다 내 안에 (within me) 무슨 일이 일어나는 가이다.
- 당신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를 없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권한 위임의 법칙)